

韓國 통시(뒷간) 文化的 地域的 研究*

張 保 雄**

뒷간에 관한 호칭으로서 한반도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었던 용어는 통시이나, 이 통시라는 표현은 현재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임을 답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돼지울과 뒷간이 함께 만들어진 경우에 통시라고 호칭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통시는 돌로 울을 만들어 돼지울을 만들고, 돼지울의 한쪽에 높게 高床의 형태로 뒷간을 만든다. 즉 돼지울과 뒷간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졌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고상의 통시가 분포되어 있다. 통시에 돼지를 사육하는 마을도 있고, 고상의 통시이지만 현재는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 마을도 있다. 선암사와 송광사의 뒷간도 고상의 구조이나 돼지의 사육과는 관계가 없다. 사찰에서 고상의 뒷간을 만든 이유는 인분을 固化시키면 악취도 안 나고 치내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갖는 뒷간은 디딤돌 뒷간이다. 이 경우는 지면에 디딤돌을 2개 놓고 그 위에서 뒤를 보게 되어 있으며, 돼지의 사육과는 관련이 없다. 가장 단순한 구조의 뒷간이다. 서해안 도서 지방의 뒷간을 보면 돼지울과 뒷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낙동강 상류 지방에는 남녀 유별의 통시가 많다. 과거 강원도 화천민의 통시는 안채에 붙어 있다. 다설 지역인 울릉도 나리 본지에 있는 통시는 겨울의 적설기에 대비한 통시의 구조이다.

主要語 : 남방 통시 문화, 북방 통시 문화, 건식뒷간, 습식뒷간, 고상식 뒷간, 디딤돌 뒷간.

1. 序 論

1) 研究 目的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신진대사 작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 신진대사와 관련하여 보면 영양분을 생산하고 섭취하는 문화에 관련된 연구는 옛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배설과 관련된 문화의 연구는 특히 한국에서는 전무의 상태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민가와 통시는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서 한반도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놓여 있다. 과거 한국의 통시 문화가 지상에서 사라지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통시 문화의 지역적 연구는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1970년초부터 지금까지 한국 민가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문제의 하나로 한국 통시의 기원과 확산 경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통시의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통시에 관한 문화적·지역적인 접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구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통시에 관한 연구는 문화 지리학적인 연구밖에도 민속학적, 건축학적·종교학적인 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통시의 구조적·형태적 특색과 지역적 분포의 특징을 밝힘과 통시에 문화적으로 타 지역과의 관련도 구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2) 研究 方法

우리 나라 통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

* 이 논문은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됨.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히리고 남한에서 제주도, 지리산 주변 지역, 불교의 사원, 서해안의 도서 지역과 간척지역, 낙동강 상류 지역, 강원도 화전민이 거주하였던 지역, 그리고 울릉도의 나리 분지 등을 현지 답사하면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일본에서 발행된 여러 가지 문헌(李家正文, 1989; 楠本正康, 1989; 山本耕平, 1990; 鈴木了司, 1988; 飯島吉晴, 1991; 山路戊則, 1991)을 간접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통시에 관한 일본인들의 연구 성과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 변수에 관한 호칭은 연구 지역 주민이 부르는 그대로 통시·뒷간·척간 등으로 표기하였다.

2. 돼지울에 만들어진 통시

1) 南方 文化의 濟州島 통시

(1) 제주도에서 남방 문화적인 요소

제주도 남서부의 열대 해역에서 흘러오는 난류인 쿠로시오(黑潮)의 지류가 제주도의 남쪽 해역을 흐르고 있어서 제주도 남부 해안에는 야자나무의 열매가 漂着되고, 주민들은 그것을 주워다 쪼개서 바가지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사 시대나 고대에 있어서의 도적이든 우연이든 동남 아시아의 열대 혹은 아열대의 남방에서 해류를 이용한 제주도로의 주민의 이동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근세에도 1653년에 네덜란드인 하멜은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해하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제주도 서남부에 위치하는 가파도에 상륙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다. 즉 선사 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남방으로부터 주민의 이동은 간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남방으로부터 주민의 이주는 그들의 생활양식도 옮겨오는 것이므로 남방 문화도 함께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도의 살림집에서 남방 문화의 요소로는 안끄리(안채)와 정지끄리(부엌채)의 분리, 정지(부엌의 제주도 방언) 내부에서 3개의 돌 위에 솥을 얹은 형태로 만들어 취사용 열을 온돌로 연결하여 난방에 사용치 않고 밖으로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돼지울과 통시(뒷간의 방언)가

미분리 상태로 만들어진 것 등을 들 수 있다(張保雄, 1974). 이 밖에도 가정에서 남자는 주로 어로에 종사하고 여자는 밭일과 연안에서 잡수하는 일로 노동의 성별 구분이 확실한 것은 마이크로네시아 여러 섬의 주민 생활과 공통된 내용이다.

(2) 돼지울에 만들어진 제주도의 통시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주민들은 재래식 뒷간을 통시라 부르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도 있다. 즉 표선면과 우도에서는 통새, 한경면에서는 통지, 그리고 중문면에서는 돛통이라 부르기도 한다. 집터 안에서 통시는 안끄리 혹은 바끄리 옆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돼지울은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만들어졌고, 그 한쪽에 뒷간이 만들어져 있다. 돼지울의 크기는 직경이 3m 내외이고 그 둘레에 현무암의 잠석으로 쌓은 울이 둘러 있으며, 그 높이는 1m 내외이다. 뒷간의 높이도 돼지울의 높이와 같으며, 계단으로 오르게 되어있고, 3면에 높이 160cm 정도의 돌 벽을 쌓았고 위에는 지붕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전면에 문을 달았다(그림 1).

그러나 家勢가 약한 집에서는 통시에 벽이 없는 경우도 많다. 여름의 장마철에는 반드시 우산을 들고 통시에 가야하고, 또한 돼지가 클 경우에는 1m 정도의 막대기를 들고 통시에 올라가 용변을 보면서 돼지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시의 경우는 막대기를 통시 앞에 놓아둔다.

사람이 통시에 오르는 소리가 나면 돼지는 통



그림 1. 제주도 섬읍 민가의 고상 통시

시 밑으로 들어와서 인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먹어 치운다. 인분은 돼지의 주식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공급되는 間食이며, 주식인 돼지의 먹이는 하루에 3번씩 주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의 통시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이 매우 비위생적인 것 같아도, 인분의 처리에 있어서 돼지를 이용하는 것은 뛰어난 생활 지혜의 하나이다. 현지 주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제주도와 같은 화산 토양에는 인분을 직접 비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인분이 돼지의 내장을 경유해서 돼지의 변으로 나온 것을 사용하는 것이 농사에 좋다고 한다. 그리고 인분을 사료의 일부로 먹인 돼지는 그 고기가 연하고 맛도 좋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돼지의 울에 통시를 같이 만들어 돼지를 사육하는 문화는 제주도 특유의 문화가 아니고 남방에서 전래된 문화의 하나인 것이다. 제주도에 통시라는 단어는 뒷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돼지울을 의미하기도 하는 용어이다.

현재 제주도에 돼지가 있는 통시는 농촌이나 어촌 어디에서도 자취를 감추었고, 다만 관광객을 위한 전시용으로 성읍의 민속 마을에 있는 조일훈씨의 민가의 통시에 돼지를 놓아 기르고, 표선의 민속촌에도 통시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제주도 통시의 모형으로 남겨 둔 것들이다.

2) 智異山 東部 地方의 高床 통시(산청군내의 통시)

(1) 南沙里 이상택씨의 高床 통시

남사 마을은 행정적으로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속하고, 지리산의 東斜面에 위치한다. 남사리의 風水地理인 형국이 半月形이어서, 마을 주민들은 반월의 중앙 부분을 건축물로 전부 배우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마을의 중심부를 공터로 남겨 두고 있는 독특한 곳이다. 이 마을은 1993년에는 35세대로 구성되었고, 과거부터 유교의 영향이 강하여 기독교의 포교가 되지 못하며, 유교적인 생활 규범이 일상 생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마을에 약 200년 전에 건축된 성주 이씨의



그림 2. 남사 마을 이상택씨의 고상 통시

宗家인 이상택씨의 살림집이 보존되고 있으며, 여기에 200년 이상된 안통시가 있다. 안통시는 안채에 기거하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뒷간이고, 안채의 후방 북서쪽에 분리되어 위치한다. 통시의 높이는 1m 정도이고 여기로 오르기 위한 돌로 쌓은 계단이 통시의 우측에 만들어져 있다(그림 2). 돌계단으로 올라가 통시 문을 밀고 들어서면 1.5평 정도의 高床의 공간이 있으며 여기에 뒤를 보는 타원형의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인분은 아래로 떨어진다. 고상 아래의 지면을 깊이 20cm 정도로 넓게 파고 여기에 위에서 떨어지는 인분을 모으며, 그 위에 재를 뿌리고 벚짚이나 마른 풀로 덮어서 인분의 수분을 감소시켜 굳어지게 한다. 이 인분을 농사철에 경작지로 퍼내서 농작물의 밑거름으로 사용한다.

현지 답사에 의하면 10년전 만해도 일반 농가에서는 고상 통시의 내부에서 돼지를 사육했다. 이 마을에서 통시를 고상으로 만든 중요한 이유 중에는 고상 아래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2) 南沙里 최재기씨의 문이 없는 高床 통시

남사 마을의 대략 중앙에 위치하는 최재기씨의 살림집은 1920년대에 건축된 비교적 규모가 큰 집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깥 마당을 사이에 두고 행랑채와 사랑채가 배치되었고, 안대문을 들어가면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사랑채가 마주보고 또한 아래채와 큰고방이 마주 대하고 있다. 즉 안마당 주변 4방에 건물이 한채씩 배

치되어 있다. 큰고방의 뒤편에 한 칸 넓이의 안통시 건물이 있다.

이 통시의 구조도 한 칸 크기의 평면에 반칸만을 고상으로 만들었고, 판자를 편 고상에는 뒤를 보는 구멍이 하나 있고, 안쪽에는 재를 쌓아 놓았다. 뒤를 본 후에 이 재를 구멍 아래로 떨어뜨려 인분을 덮는다. 재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인분과 혼합되면 인분의 악취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 또한 인분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분이 굳어져서 퍼내기에도 편리하다.

이 안통시는 안채의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통시인데도 문을 달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문이 없으므로 고상 아래의 인분 냄새가 증발되어 오히려 깨끗한 통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문이 달린 통시보다 문이 없는 통시가 위생적이다. 문이 없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고상에 앉아 뒤를 보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일이 없다. 만일에 통시 밖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통시 안에서 기침을 몇번 하면 오던 사람은 발을 멈추고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문이 없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公廁(공중변소)과 같으나 구조의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南沙 마을의 고상 통시는 우리 나라의 통시 문화에서 古形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통시에 문을 달지 않는 형태는 통시 문화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3) 智異山 北部 地方의 高床 통시

(1) 義灘里의 高床 통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는 지리산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70여호의 가옥이 모여서 이루어진 촌락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돼지우리 위에다 뒷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아래채의 한쪽 끝에 높이 1m 정도로 고상식 통시를 만들고 그 아래에서 돼지를 사육한다. 일부 농가에서는 돼지 놀이터를 집 밖에다 만든 경우도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고상통시에 돼지를 키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로 인분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는 돼지가 인분을 간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료가 절약되고, 셋째, 집안의 뒷간에서 발생하는 汚穢가 없으며, 넷째, 이러한 통시에서 만들어진 퇴비는 비료로서의 효능이 뛰어나고, 끝으로, 통시에서 자란 돼지는 육질이 연하고 지방질이 적어서 맛이 좋다고 한다. 돼지는 대부분 이 마을에서 도살되지만 돈육의 대부분은 도시인들이 직접 와서 구매해 간다고 한다. 이 촌락에서 위와 같은 통시에서 돼지를 사육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의 성립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智異山 西部 地方의 高床 통시(구례군 내의 통시)

(1) 수한 마을의 돼지울 위의 통시

수한 마을은 행정적으로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에 속하고, 75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은 벼농사를 주로 하면서 농한기에는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하면서 비교적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원래 벗지붕의 민가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지붕 개량에 의해서 슬레이트 지붕의 집, 기와집, 그리고 일부의 합석집등으로 개축되었다. 이곳 주민들이 아래채라 부르는 건물은 안채의 밖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내부는 농기구를 넣어 두는 헛간, 소를 재우는 외양간, 그리고 돼지가 있는 통시로 구성되었다. 돼지막(이 지방의 방언) 위에 뒷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다리로 뒷간을 오르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高床의 형태로 만들어진 통시이다.

수한 마을에서 박보선씨의 살림집 배치와 그 구조를 보면, 3칸의 기와집 본채와 그 우측에 옆으로 별동으로 길게 합석 지붕의 아래채가 위치하고 그 내부에 헛간, 외양간 그리고 돼지막이 있으며, 이 돼지막 위에 뒷간이 2층으로 다락처럼 만들어져 있다. 뒷간의 높이는 1m 정도이고, 불완전한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 판자로 만들어진 뒷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 1평 반 정도의 널판으로 된 공간이 있다(그림 3). 이 공간의 한쪽에 정방형으로 구멍이 뚫렸고, 뒤를 볼 때는 여기에 쪼그리고 앉으며, 아래의 돼지는 떨어지



그림 3.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의 고상 통시(돼지막 위의 통시)

는 인분을 먹여 치운다. 제주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돼지에게 인분은 간식이며 주식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5년 전 만해도 수월리 수한 부락의 가가호호의 뒷간 형태는 전부 돼지우리에 설치된 高床의 뒷간이었으나 현재는 돼지가 없는 뒷간이 보급되고 있다. 돼지막 위에 설치된 뒷간은 위생상 불결하다고 하여 행정 당국에서 뒷간의 개량을 권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당국의 방침을 쉽게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의 주민들은 돼지막 위의 고상의 뒷간을 자연스럽게 위생적인 인분 처리장으로 생각하며, 또한 농경에 필수적인 퇴비의 생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대 위생학이나 기생충학적으로 생각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나 우리 조상들은 돼지 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않고 삶아서 먹었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예방은 충분하였으며, 돼지의 배설물에는 파리가 쉬를 슬지 않고, 그 악취도 인분에 비하면 약한 편이어서 비교적 위생적이라 할 수 있다.

(2) 상류층 살림집 雲鳥樓의 뒷간(구례군 토지면)

윤조루는 1776년 9월 16일에 상량식을 했고 1782년에 柳爾胄가 龍川 부사로 있을 때에 준공된 당시로서는 상류 계층의 살림집에 속한다. 이 건물의 규모는 73칸집(건평 129평)이고 대지는 710평이며, 현재는 국가 지정 민속자료 제 8호로

되어 있다. 대지 안에 배치된 건물은 안채·사랑채·행랑채·제실 등으로 구분되며, 사랑채는 큰사랑·아랫사랑으로 나뉘고 큰사랑 서쪽에 3방향으로 개방된 누마루가 있다. 안채는 큰방·대청·정지·찬간·곡간 등이 모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행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18칸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모자 모양의 안채 전면 건물의 동쪽 끝에 주로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高床의 안채 뒷간이 위치하고 있다. 계단을 통해서 높이 1m 정도의 뒷간에 오르면 넓이 2평 정도에 판자를 편 공간에 구멍이 두개 뚫려 있다. 그 아래는 바로 지면이고 인분은 그 위에 쌓이며, 왕겨 및 채로 인분을 덮어 준다. 25년전 만해도 여기에서 돼지를 길렀다. 이 뒷간의 넓이는 4칸 정도인데 2칸은 뒷간이고, 나머지 2칸은 돼지의 전용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사랑채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사랑채 뒷간의 정확한 건축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기와·목재·구조 등을 볼 때에 건축 연대가 100여년전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뒷간임에 틀림없다. 오랫동안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되었기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지붕은 조선기와를 이은 맛배지붕의 형태이며, 1평반 정도의 넓이를 갖는 뒤를 보는 공간이 2개로 구성된 건물이다. 조선 시대의 신분 사회에서 지체가 높은 분이 사다리로 기어올라 뒷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별로 좋게 보일리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랑채의 뒷간도 高床式이지만 그 높이가 60cm 정도로서 사다리를 놓을 정도로 높지 않다. 고상의 중앙에 대변이 떨어지는 장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쪽은 다락처럼 만들어져서 거기에 밭셋개로 사용되는 벧단을 얹어 놓았다. 오른쪽의 측면 벽에 돼지의 출입과 퇴비를 쳐낼 수 있는 두쌍의 작은 문이 달려 있다. 이 뒷간에서도 25년전까지는 돼지를 길렀다고 한다. 이 집의 경우를 미루어 보아 조선 시대에는 斑常의 구별없이 뒷간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佛寺의 高床 乾式 뒷간

1) 仙巖寺의 高床 乾式 뒷간

조계산 동쪽 산록에 위치하는 선암사는 서기 742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며, 여기에 있는 뒷간은 불사 뒷간의 원형이 잘 보존되었고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뒷간이다. 선암사의 건축에 관련된 문서는 6·25 동란 중에 소실되어 현존하는 선암사 건물의 정확한 건축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주지 스님에 의하면 뒷간 건물은 대략 200년 전후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뒷간의 평면은 전체가 T자 모양으로 되었으며, 이것을 분해해서 보면 전면이 7칸, 측면은 2칸으로 되어 모두 14칸의 평면에다 여기의 중앙에서 앞으로 2칸의 평면이 돌출 되어 출입구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전체의 면적은 16칸으로 볼 수 있다(그림 4).

뒷간의 입구에서 한 칸 정도 들어가면 위쪽 벽 중앙에 한자로 “大便所”라 쓰고 그 아래에 한글로 “뒷간”이라 쓴 판자를 걸었으며, 바로 그 우편에 한자로 “入廁注意 1禁煙 2清潔 3默言”이라고 쓴 판자를 붙여 놓았다. 전자는 뒷간을 알리는 간판이고, 후자는 뒷간 사용 시의 守則을 표지한 것이다. 지붕의 형태는 박공이며, 3면의 박공에는 모두 박공널을 붙였고, 지붕에는 투박한 조선기와를 얹어 놓았다.

지형적으로 급경사의 토지에 뒷간을 세우기 때문에 뒷간의 입구는 1층으로 보이나 안으로 들어가서 뒤를 보는 곳은 2층에 해당된다. 앞에서 보면 1층으로 보이고 옆과 뒤에서 보면 매우 높은 2층으로 보인다. 2층의 평면은 중앙에 넓은 통로가 있고, 그 우측에 남자용 용변 공간이 한 줄에 4개씩 2줄로 모두 8개가 있으며, 좌측에는 여자용 용변 공간을 한 줄에 3개씩 2줄로 모두 6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개개의 용변 공간은 높이 120cm 정도의 판자 벽을 들렀고 그 입구에는 關閉의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다.

상층 내부의 주간 照明은 태양 광선이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비치도록 고안되었다. 즉, 전면 벽



그림 4. 선암사 고상 뒷간의 입구

에는 중간에 세로로 된 나무 살창을 옆으로 길게 만들어서 빛이 간접으로 조명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밖에서 뒷간을 쳐다보아도 내부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후면의 벽에는 아래에다 나무 살창을 만들어 빛이 바닥을 조명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내부 공간을 어둡게 함으로써 여름에도 파리와 같은 해충이 모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과거에 살충제가 없던 시절에, 밝은 곳을 좋아하는 파리의 생태를 이해하고 위층의 공간 조도를 어스름하게 만들어서 파리의 접근을 막는 지혜는 殺生을 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뒷간 건물의 모양을 앞으로 돌출시켜 T형으로 만든 것은 경사지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굳이 지붕까지 만들어서 길게 터널식으로 만든 것은, 一자 형의 위층 내부 조도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아래층은 인분이 모여지는 곳인데, 그 인분을 流動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분의 수분이 자연적으로 증발되기도 하지만, 솔잎·낙엽·왕겨·재·마른 풀 등을 아래 층의 중앙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수시로 인분 위에 그것들을 뿌려 덮어서 수분을 흡수시키기 때문에 인분은 굳어지고 인분의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층 공간은 창이 없는 벽으로 비교적 밀폐되어 있어서 위층보다 어두워서 파리와 같은 곤충이 접근하지 못한다. 신성해야 할 境內에서 인분의 악취가 풍긴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나 인분을 乾式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년 내내 굳은 인분을 모았다가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이른 봄에 쇠스랑으로 쳐내서 수레에 싣고 나가 논이나 밭에다 뿌려서 비료로 사용한다. 아래층은 지면에서 천장까지 그 높이가 3m 정도로 넓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작업하기에 편리하게 공간을 만들었다. 아래층 뒷벽 중앙에 높이 2.3m의 두짝의 널판 당길문이 있고, 여기로 작업하는 일꾼들이 출입을 한다. 아래층 벽은 지면에서 높이의 반은 습기를 쉽게 흡수하지 않고 부식에 강한 돌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위의 반은 토벽으로 만들었다.

2) 松廣寺의 高床 乾式 뒷간

송광사는 조계산 서쪽 산록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三寶 사찰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거찰이다. 전반적으로 송광사 경내에 있는 뒷간을 보면 일부는 현대적인 수세식 뒷간으로 그 구조가 변하였고, 다만 경내의 남서쪽에 전통적인 사찰의 뒷간이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 전통적인 사찰의 뒷간 上樑에 “昭和八年癸酉陰二月二十五日開基同二十三年定礎三月三日立柱同九日巳時上樑”이라고 상량문이 선명하게 쓰여 있다. 즉, 이 뒷간은 1933년 음력 2월 15일에 티 닦기를 하였고 23일에 주춧돌을 놓았으며, 3월 3일에 기둥을 세웠고, 3월 9일 오전 9~11시 사이에 상량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뒷간은 환갑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사찰 경내에서 60년이 지난 뒷간을 쉽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6·25 동란 중에 많은 사찰이 소실되었으며 또한 사찰의 뒷간도 현대식의 수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간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경사진 지형에 뒷간이 위치하는 것 등은 선암사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 규모가 약간 작고 뒷간 주위의 조경을 선암사의 것보다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 등은 크게 다른 점이다. 뒷간 내부에는 뒤를 볼 수 있는 칸막이 공간이 10개 뿐이다.

원래는 지형이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뒷간이 설 자리의 앞 좌우에 넓게 장방형으로 파서 연못을 두 곳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흙으로 뒷간의



그림 5. 송광사 고상 뒷간의 후면

터를 돌아서 뒷간 터의 후방을 인위적으로 비탈지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연못도 만들고 뒷간의 터 들음도 하는 일석이조 격이었다. 여기에 뒷간의 앞으로 淨廊(뒷간의 내부 입구 위에 붙인 널판 위에 쓰여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교적인 의미의 뒷간)이 돌출 되어, 뒷간 건물은 전체적으로 T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정랑 앞으로 통로가 있고 그 양측에 각각 50평 정도의 연못이 있으며 여기에 蓮根을 심어서 여름에는 연 잎이 무성하고, 연꽃이 피었을 때 그 사잇길로 걸어서 뒷간에 들어가는 기분은 마치 극락에 가는 어느 길목을 연상케 한다.

여기의 高床式의 乾式 뒷간에서도 선암사 뒷간과 마찬가지로 인분의 汚穢가 사계절을 통해서 거의 풍기지 않는다. 淨廊 외부의 우측에 마른 낙엽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그것으로 아래의 지면으로 떨어진 인분에 수시로 덮어 주고 있다. 즉, 이러한 과정은 인분의 固形化 작업이다(그림 5).

4. 간단한 구조의 디딤돌 뒷간

1) 운봉고원에 분포하는 디딤돌 뒷간

디딤돌 뒷간은 한반도에서 서남부의 평야부에 넓게 분포하였으며,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발생 연도도 오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인분을 재에 버무려서 모았다가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한반도의 농경에서 비료를 사용했던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동남부에 위치하는 운봉고원은 해발고도가 400m 내외로 비교적 낮은 고원에 속하나, 비의 이양은 서해안의 낮은 평야 지대보다 보름 정도 빠르고, 추수도 보름 정도 빠르다. 이러한 현상은 역시 고원 지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 현상의 영향이다. 고원의 동서로 88고속도로와 일반국도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은 일찍이 개발되었으나 고원 주변의 산록과 계곡 지역은 사회적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서 옛 뒷간이 많이 잔존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뒷간을 칩간이라 부르고 있다. 칩간은 전라도의 방언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운봉 고원의 서남부 산록 지대에 위치하는 주천면 덕치리의 민가에는 아래채 혹은 행랑채의 한쪽에 디딤돌 칩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 칩간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칩간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안쪽에 혹은 입구 가까운 곳에 길이 45cm 정도, 높이 15cm, 그리고 폭 15cm 정도의 디딤돌 2개를 30cm 간격으로 띄어서 지면에 놓았으며, 디딤돌 앞에는 재나 왕겨를 쌓아 놓았고, 디딤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본 후에는 앞에 놓인 나무로 만든 부삽이나 쇠삽으로 재나 왕겨를 퍼다가 인분을 덮고, 그리고 디딤돌 뒤쪽으로 재에 버무려진 인분을 쌓아 놓게 되어 있다.

이러한 디딤돌 칩간은 출입문을 널판으로 만들고 작은 환기 구멍 외에는 밖의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는 어둡컴컴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칩간의 건물은 매우 허스름하고 엉성하게 만들어졌다. 즉 이러한 칩간의 구조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파리는 맑은 곳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싫어한다는 파리의 생태를 잘 알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인분을 재와 함께 버무리면 산과 알칼리가 중화되어 인분의 악취가 없어진다는 사실도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거름으로 인분만을 밭에다 뿌려 주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밭에서 악취가 풍기고 비위생적이거나, 칩간에서 재에 버무려진 인분을 밭에다,

특히 고추 밭에 뿌려 주면 토양이 중성으로 변하여 고추 작물이 잘 재배된다. 우리 조상들은 원래 인분을 濕式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분을 재와 혼합해서 인분의 습기를 어느정도 제거하는 乾式의 처리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운봉고원의 북쪽으로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으로 연결되는 국도를 따라가면 장수군 번암면 소재지에 이르고, 동면의 사암리에는 아적도 과거 운봉 고원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던 셋집 2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여기의 칩간은 디딤돌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마을에도 1988년 전까지는 돼지울과 뒷간이 같이 있는 뒷간이 많았다.

5. 西海岸 島嶼 地方과 干拓地의 뒷간

1) 落月廳의 돼지울과 나란히 있는 뒷간

낙월도는 행정적으로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 속하며, 유인도 10개 섬과 무인도 38개 섬으로 구성된 순수한 도서의 면이다. 여기에서 뒷간 조사는 행정 및 경제의 중심지인 상낙월도와 하낙월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2섬은 1990년에 제방으로 연결되어 도보로 내왕할 수 있다. 상낙월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1992년말 현재 252명, 하낙월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158명이지만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낙월도에 있는 면사무소 건물과 교회 건물만이 신축되어 깨끗하고 대부분의 주택 건물은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매우 낡은 인상을 풍긴다. 배 위에서 바라본 낙월도의 건축물은 꽤히 직전의 느낌을 주고, 마을 전체가 생동감이 없어 보인다.

상·하낙월도에서 가장 보편적인 민가의 평면 구조는 2칸의 정지·큰방·광(이곳 주민들은 대청을 광이라 부름), 작은방 등이 각각 한 칸으로서 전체로는 5칸의 구조이다. 정지의 전면에 작은 모방이 놓여 있다. 안채를 등지고 마당의 우측에 헛간과 돼지울 그리고 뒷간으로 구성된 부속 건물이 있다.

뒷간의 내부는 문을 닫으면 채광이 불량하여 비교적 컴컴한 편이나 자연의 照度로 파리의 접근을 막고 있다. 뒷간의 문은 각목으로 문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함석을 퍼서 비·바람이 뒀간 안으로 들어치는 것을 차단시킨다. 이곳은 바람이 연중 불고 여름에는 강우가 많아서 이를 대비한 문으로 보여진다. 뒀간의 안으로 들어서면 좌측에 큰 항아리 혹은 큰 비닐통을 묻어 놓았고 그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뒤를 보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다. 치간의 지붕은 그 모양이 외쪽 지붕이며, 지붕의 재료로는 시멘트 슬레이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뒀간 바로 옆에는 한칸 혹은 칸막이로 막은 두칸의 돼지울이 접속되어 있다. 뒀간과 돼지울은 불결하고 악취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만들어 놓았다.

2) 蟬島 조기 波市와 공중 변소

위도는 그 면적이 11.14km², 해안선 길이는 31.5km, 섬 안에서 농경지는 약 12% 정도이고 그것도 밭이 대부분이다. 蟬島面의 인구는 1980년에 4,159명이던 것이 1992년말 통계에 의하면 1,186명으로 감소하였고, 이 중에 남자가 610명 여자는 576명이다. 여기도 다른 도서지방과 같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원래 위도는 전라도 부안군에 속해 있었으나, 1896년에 전라남·북도로 분리될 당시 위도는 전라남도 지도군에 편입되었었다. 그 후 1914년 일제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서 지도군이 소멸되고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편입되었다. 1963년에 당시 군사 정부는 전북의 금산군을 충남에 편입시키고, 위도를 전북의 부안군에 편입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도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위도 남부에 위치하는 칠산 바다는 조기의 황금 어장으로 유명하였으며, 4~5월의 조기철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300여척의 어선이 철야 작업으로 만선의 깃발을 달고 위도의 파장금에 귀항하여 활기에 넘치는 波市가 형성되었다. 당시 위도의 조기 파시와 연평도의 조기 파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당시 조기잡이 어로에 종사한 어부는 2~3천명 정도였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를 위도에서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을 상대하는 여자도 400명 이상이 위도에 모여

있었다고 한다. 파장금에는 갑자기 늘어난 인구에 대비해서 마을마다 3~4곳에 공동 변소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기의 어획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파시도 어획량의 감소와 함께 활기를 잃어 가고 있었으며, 60년대 후반부터는 조기와 함께 파시도 공동변소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위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大里는 작은 어항으로서 3개의 자연 부락으로 구성되었다. 이 마을에는 전통적인 민가는 한 채도 없고, 전부 개량주택으로 변하였다. 뒀간은 격리되어 마당의 전면 우측에 세웠고, 그 형태와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이 뒀간의 내부로 들어서면 사방 1.5m 정도의 넓이에 항아리나 플라스틱 통을 묻어놓고 그 위에 발판을 얹어 놓았다.

이 섬에서 인분을 처내는 일은 남자가 하지 않고 부녀자들이 인분을 똥둥우(둥우는 단지의 방언)에 퍼 담아 머리에 이고 밭으로 가서 뿌려준다. 1990년 이전만 해도 뒀간에 재를 쌓아 놓고 디딤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뒤를 본 후에 재를 덮어 인분을 처리했으나, 연료로 프로판 가스가 보급되면서 재의 생산이 어렵게 되자 재를 사용하던 뒀간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료로서 밭에다 인분을 뿌렸으나 현재는 비료로서의 인분의 가치는 없어졌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여 농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일부의 경지는 농작물이 없는 인분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3) 全北 西海岸 廣活面 干拓地의 뒀간

전라북도 해안 일대에는 금강·만경강·동진강 등의 유입으로 옥구반도·진봉반도 및 부안군 등의 연안을 따라 총적층의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였고, 한일합방 이후에는 日帝의 產米增產政策에 의하여 이들 간석지의 간척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23년에 진봉반도의 광활 간석지는 동진농업주식회사를 창설한 일본인에 의하여 간척사업이 시작되었다. 1924년에 방조제 축조 기공식을 하고, 1927년에 방조제 10km가 완성되었고, 1,838정보의 開畝이 진행되면서 동진수리조

합에 의한 섬진강 운암호의 물이 1928년에 농업 용수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3년에 개답과 내부 공사가 완성되었다. 여기가 현재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일대가 되며, 면내에는 산다운 산이 없는 광활한 평야만 전개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일본인의 동진농장에서는 농토가 조성되는 대로 한국의 영세한 소작인을 入植시켰다. 농장측은 영농과 공동 작업의 편의와 음료수의 구득 및 소작인 감시의 효율화를 위해서, 6가구 혹은 12가구로 이루어진 3칸 구조의 초가로 농로와 수로를 끼고 길게 열촌을 형성하였다.

뒫간은 넓은 마당의 서쪽에 큰채와 직각으로 분리되어 배치된 헛간 건물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뒫간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큰 항아리를 묻어 놓고 그 위에서 뒤를 보도록 되어 있다. 처음에는 간단한 구조물의 뒫간이 큰채의 우측 전면에 있었으나 후에 헛간을 달아 내어 2~3칸의 헛간 건물의 끝에 배치되게 되었다. 어떤 농가에서는 뒫간 내부의 일부를 재간으로도 사용하나 인분과 버무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항아리를 묻고 인분을 貯溜하는 濕式의 뒫간은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인분을 직접적으로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의 농촌에 보급시킨 것이다.

6. 落東江 上流 地方의 통시

1) 河回 마을의 둥근 지붕 통시

경북 안동시에서 자동차로 서북쪽으로 50분 정도 달리면 낙동강변에 위치하는 유서 깊은 하회 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은 낙동강이 曲流하여 이루어 놓은 토사의 퇴적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을 “물도리”라 부르고, 한자로 河回라 표기한다. 풍수설도 이 마을의 形局을 지형에 잘 어울리게 太極形·蓮花浮水形 또는 다리미형으로 보고 있다. 마을의 형상이 마치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마을이 몰락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다리미 모양이라 해서 우물을 파면 다리미 불이

꺼진다고 하여 마을에 우물을 파지 않았고, 과거에는 낙동강물을 음료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는 집집마다 간이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마을은 전형적인 背山臨流의 위치에 있다.

마을의 중앙부에는 류씨 일문의 규모가 큰 기와집이 여러채 있고, 주변 부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초가가 분포되어 있다. 西涯를 흠모하여 류씨 문중에서 17세기에 건축한 忠孝堂은 조선 시대 중엽의 전형적인 사대부 살림집으로서 전체가 5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의 남쪽 대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사랑 통시가 있고, 여기는 주로 집안의 남성들과 사랑 손님들이 이용하는 통시이다. 서쪽 대문 좌측에는 안통시가 있고, 여기는 안식구들이 사용하는 통시이다. 내부 구조는 큰 항아리를 묻어 놓고 그 위에 널판자로 틀을 만들어 엮어 놓았고, 그 위에서 뒤를 보도록 되어 있다. 통시문을 닫고 안에 있으면 내부의 조명이 어두워서 밝은 곳을 선호하는 파리와 같은 해충은 접근하지 못한다.

충효당에서처럼 삼류층 주택에서 통시의 위치는 대문간 옆에 사랑 통시, 그리고 안채의 옆이나 뒤에 안통시가 배치되는 공통점이 있다. 사랑통시와 안통시는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을 두고 격리되어 있는 공통점도 있다.

과거에 류씨 일문에 예속되었던 상민의 민가에는 일반적으로 마당 건너에 규모가 작은 통시 한 채만 세워져 있다. 이 통시의 평면은 방형이나 그 지붕이 원추형으로 만들어진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 통시의 원추형 지붕은 모두 뱃길으로 이어 놓았다. 마을의 동쪽의 花山 중턱에 위치하는 서낭당과 국사당의 지붕형태도 원추형으로 만들어졌다. 원추형의 지붕 모양은 목시적으로 동양의 우주관인 天圓地方을 상징하는 것 같다.

2) 祥雲面의 男·女 有別의 통시

상운면은 경상북도의 북단에 있는 봉화군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안동시에서 봉화읍으로 연결되는 국도가 면내에서 남북으로 뻗어 있고 이 국도변에 구천리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산록을 따라 동서로 길게 펼쳐 있다. 이 마을에서

대부분의 살림집은 관서 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二자형의 구조이다. 호남 지방에 분포하는 二자형은 큰채와 행랑채 사이에 넓은 마당이 있으나, 북한의 관서 지방과 상운면의 二자형은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협소한 안마당이 있고 사랑채 앞에 넓은 마당이 위치하는 공간 배치는 전자와 후자의 근본적인 건물 배치의 차이점이다. 부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안통시는 안채의 후방에 있고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통시는 마당 입구에 세워진 대문간의 우측에 있다. 통시 내부의 조명을 어둡게 한 것, 땅에 항아리를 묻어 놓고 그 위에 발판을 놓은 것 등은 하회 마을의 통시 구조와 유사하다.

가세가 넉넉치 못하여 사랑채는 없고 안채만 있는 경우는 불품없는 통시를 안채의 우측에 세워 놓았다. 그러나 통시 사용에 있어서 남녀 유별의 의식이 강하여, 통시의 내부는 중간에 벽을 만들어 2등분하고, 입구를 전후에 각각 만들고, 앞으로는 부녀자가 출입하고 뒤로는 남자들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7. 江原道 火田民 통시

1) 新里의 화전민 통시

과거에 화전민들은 2~3년마다 새로운 화전을 만들 산 사면을 찾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민가는 매우 간소한 구조와 형태로 건축한다. 이들 민가의 벽은 통나무를 우물 정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 만들고, 통나무 사이 사이의 틈은 흙으로 메웠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통나무 집을 투방집이라 부른다. 지붕의 재료로서 과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너와였다. 너와라 함은 널기와의 합성어이다. 소나무를 길이 70cm 정도로 도끼로 혹은 톱으로 자르고, 또 그것을 도끼로 쪼개서 널판자를 만들고, 이것을 기와처럼 포개서 지붕을 이었다(張保雄, 1976).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와 그 주변에는 1970년대 초에만 해도 너와지붕의 살림집이 대부분이었고, 일부에 저름(대마의 속심) 지붕과 굴피(상수리나무 껍질) 지붕 그리고 약간의 슬레이트 지붕의 민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슬

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2채의 너와집만을 삼척군에서 민속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그 건물에서 주민이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 허름하게 보이고, 다시 말하면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에 모기의 발생이 없고,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다. 과거에 맹수의 내습에 대비하여 마구(외양간)를 안채의 일부에다 만들고 그 곳에서 소를 3~4두씩 기르고 있었다. 통시는 마구의 뒷벽에 붙여서 만들어 놓았고, 이 통시는 2칸으로 나뉘어, 앞쪽에는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통시가 있고, 그 뒤에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안통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안채와 통시를 분리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겨울에 적설량이 많고 밤에 맹수의 출몰이 많았던 과거에 이 곳 주민들은 통시를 안채의 측면에 붙여서 만들었다. 안채와 통시를 분리시킨 문화와는 분명히 다른 통시 문화라 할 수 있다.

통시의 구조를 보면 마구 뒤에다 길게 웅덩이를 파고 그 둘레를 돌로 쌓아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굵은 각목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대·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두꺼운 널로 벽을 만들고 앞과 뒤에 출입구를 각각 하나씩 만들고 문을 달았다. 마구에서 나오는 오물과 인분은 집 주변의 밭 농사에 비료로 사용되었다. 인분과 소의 오물이 혼합되면 악취가 적어진다는 사실도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그림 6).



그림 6. 신리 너와집의 통시

8. 鬱陵島 多雪 地域의 통시

1) 나리 분지의 개척민 민가의 통시

울릉도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空島政策으로 인하여 주민이 거주할 수 없었으나, 高宗 19년인 1882년에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지면서 강원도를 중심으로 남한 각지에서 개척단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나리 분지에 들어와서 성인봉의 산림을 벌목하고 혹은 농지를 개간하면서 터전을 잡기 시작했다.

겨울에 적설량이 많고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나리 분지에 거주하였던 이주민들은 이러한 자연 환경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민가를 고안해 냈으며, 통시도 적설기를 대비해서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다. 건축 재료로 성인봉에 있는 울창한 나무를 베어다가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양쪽 끝에 홈을 파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통나무를 쌓아서 벽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통나무 사이의 틈에는 흙을 발라서 메우고, 굽은 마루대공 위에 머리대를 얹고 그 위에 서까래를 걸치고 너와를 이어 너와지붕의 투방집(통나무집)을 세우고 살았다. 이러한 구조의 민가는 지붕 위에 눈이 많이 쌓여도 지붕과 벽체가 무너질 염려가 없다. 지붕위 처마끝 가까이에서 지면에까지 닿는 억새풀을 엮어서 만든 우테기라 부르는 防雪壁을 만들어 놓았다. 방벽과 우테기 사이의 간격은 약 1.5m로서, 눈이 많이 쌓이는 겨울에 집안에서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張保雄, 1977).

겨울에 북서 계절풍으로 인해서 2m 이상의 많은 눈이 나리 분지에 쌓일 때는,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고 주로 옥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때에 대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테기의 우측 내부 공간에 디딤돌을 2개 놓고 그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뒤를 보고 재로 덮어서 뒤에 쌓아 놓는다. 여기도 역시 인분과 알갈리 성인 재가 혼합되어 汚臭가 나지 않는다. 이 경우도 인분을 건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시는 울릉도 개척 당시에 담았던 형태이다. 1977년 겨울에 나리 분지

에서 필자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 한 채의 민가에서 이러한 구조의 통시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는 그 민가가 용인 민속촌에 옮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나리 분지에 많은 통시는 안채 앞의 마당 건너편에 별채로 만들어 놓았다. 긴 겨울 동안 통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분 저장 탱크를 깊고 넓게 파서 만들고 그 위에 긴 통나무를 2개 걸쳐 놓았고 거기에 앉아서 뒤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2m 정도 쌓일 때는 통시 입구와 우테기 입구 사이를 굽은 새끼줄로 연결하고, 그 줄을 계속적으로 돌려서 터널을 만들고 사람들은 기어서 통시에 내왕한다. 위의 2 유형의 통시를 통해서 적설량이 많은 자연 환경에서 사는 울릉도 주민의 지혜를 읽을 수 있다.

9. 結 言

우리 나라의 통시 문화를 기원지에서 한반도로 확산되어 오는 루트를 생각해 보면 남방의 통시 문화와 북방의 통시 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주도에서 돼지울과 뒷간이 함께 있으면서 집 밖에서 만든 통시는 남방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온 주민들이 갖고 온 남방의 통시 문화이다. 돼지울과 통시는 같이 있지만 이 통시가 집 안에 만들어진 것은 북방의 통시 문화라 할 수 있다. 후자는 현재 지리산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남방의 통시 문화이든 북방의 통시 문화이든 돼지울과 뒷간이 함께 있는 통시는 모두 고대의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선암사와 송광사의 高床 뒷간 및 민가의 디딤돌 뒷간은 전형적인 乾式 뒷간문화이다. 인분을 재에 버무려서 처리함으로써 인분의 오취와 악취가 나지 않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해충인 파리의 접근을 막는 지혜는 오랫동안의 체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뒷간에 항아리를 묻어서 인분을 저장하는 방법은 貯溜式 뒷간이다. 대표적인 濕式 뒷간으로는 고대 일본에서 천변에 뒷간을 높게 만들고 그 위에서 뒤를 보고 강에다 인분을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뒷간을

川屋(가와야)이라 부른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의 고상 통시 중에는 처음부터 뒷간의 문을 달지 않고 통시의 공기를 맑게 하는 구조의 독특한 통시도 있다. 이것은 매우 위생적이다.

다실 지역인 울릉도 나리 분지에 있는 민가의 통시는 겨울의 적설기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집안에도 통시를 만들었고, 밖에다 만든다 하더라도 적설기에 터널을 만들어 내왕하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시 문화도 지역에 따라 주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통시 문화의 확산과 관계가 매우 깊다. 현재 뒷간에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 고상의 통시가 있는 지역이라도 과거에는 돼지를 사육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통시에 돼지를 사육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文 獻

張保雄, 1974, “濟州島 民家の 研究,” 地理學, 10, 14-15.
 張保雄, 1976, “韓國 妻入民家 小考,” 地理科學, 日本地理科學會, 24, 3-5.
 張保雄, 1978, “울릉도 羅里洞의 투방집 研究,”

地理學, 16, 26-30.
 高野六郎, 1931, 便所の進化, 厚生閣, 東京, pp. 1-126.
 谷直樹, 1981, 便所のはなし, 鹿島出版社, 東京, pp. 1-118.
 楠本正康, 1989, こやしと便所の生活史, ドメス出版, 東京, pp. 1-202.
 鈴木了司, 1990, トイレ學入門, 星雲社, 東京, pp. 1-241.
 飯島吉晴, 1991, 竈神と厠神, 人文書院, 京都, pp. 1-229.
 山路茂則, 1991, トイレ考現學, 啓文社, 京都, pp. 1-218.
 山本耕平, 1990, トイレが變る, 保育社, 東京, pp. 1-181.
 杉戸清, 1960, 厠談義, 實業之日本社, 東京, pp. 1-322.
 李家正文, 1988, 厠まんだら, 雪華社, 東京, pp. 1-282.
 李家正文, 1989, 糞尿と生活文化, 泰流社, 東京, pp. 1-261.
 平田純一, 1989, トイレ窓から, 扶桑社, 東京, pp. 1-158.

A Regional Study on the Korean Toilet Culture

Bo-Woong Chang*

Summary

According to cultural diffusion route, the Korean toilet culture could be classified as southern culture and northern culture. In Cheju Island the toilet is located on the stone fence of swine. The native people of Cheju Island name it as TONGSHI. And southern culture could be diffused from South Sea to Cheju Island by the sea current.

Around Mt. Chiri area, the greater part of traditional toilets are on the upper floor in the barn, and pigs are on the bottom floor under the toilet. This type of toilet would be the northern

culture of the toilet, which would be diffused from continent of Asia to Korean Peninsula. Residents of these areas also name this toilet as TONGSHI. The Korean word "TONGSHI" means a toilet on the pig fence.

Traditional toilet culture in Korea differs from regions and residents. We can find dry-closets in Seon-am Temple and Song-kawng Temple. This high floor dry-closet type would be effected by Buddhism. In the reclaimed land and islands of west sea we could not find the old traditional toilets.

Key Words: Southern toilet culture, Northern toilet culture, dry-closet, wet-closet, high floor toilet, two stepping stone toilet.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